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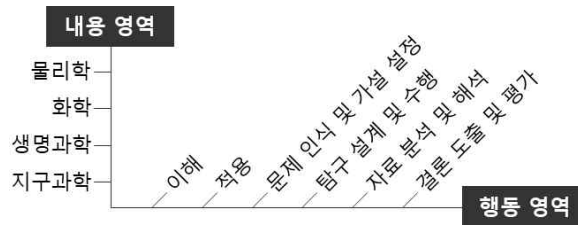
# 수능 지구과학1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할까?

( 포만한 : 황 9 / 오르비 샌즈 )  
동일인물임.

## Intro. “수능” 지구과학1은 어떤 과목일까?

일단, 수능에서 ‘과학탐구’ 영역의 ‘성격’과 ‘평가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2021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학습방법안내」 파일(254페이지부터)을 인용하겠습니다.

과학탐구 영역의 시험은 대학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과학 개념(과학 개념뿐 아니라 원리, 법칙, 이론을 포괄하는 의미)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 및 과학적 탐구 사고력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다양한 탐구 상황에서 측정하는 시험이다.



과학탐구 영역 평가 문항은 다양한 탐구 상황에서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의 요소를 평가하도록 구성한다. 내용 영역에는 과학 교과 각 과목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며, 행동 영역에는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분석 및 해석, 결론 도출 및 평가와 같은 탐구 기능 요소가 포함되고, 주요 과학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도 포함된다. 또한, 문항의 소재로는 순수 과학적 소재뿐만 아니라 실생활 소재도 사용된다.

여기에서 평가원에서 지향하는 수능 과학탐구 영역에 대한 출제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과학1 하나만 놓고보면 지구과학1은 어떤 성격을 가질까요? 지구과학1을 많이 보고, 많이 풀어보면서 느꼈던 경험을 결론지으면, 지구과학1은 ‘자료 분석 및 해석’ 성격이 99.9%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주요 개념들을 이해하고, 자료를 분석 또는 해석하기 위해 개념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자, 이제 몇 개의 예시 문제 해설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지구과학 시험에 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1. How to solve 「Earth Science I」

문제를 풀기 전에 모든 지구과학1 문제는 아래 2단계 방식으로 풀어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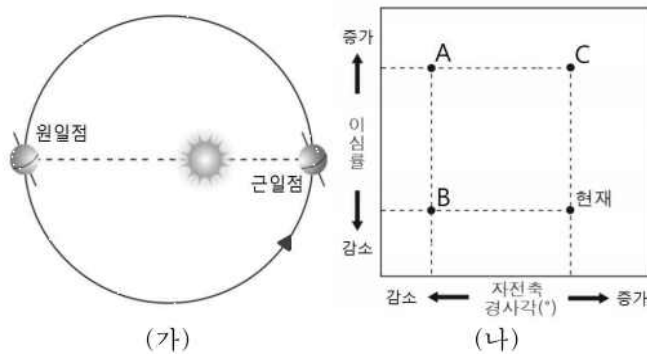
## ① 제시문 읽기 + 자료/선지 훑어보기 ★

문제가 무엇인지는 읽어봐야겠죠? 중요합니다. 탐구 좀 하신 분들이면, 자료+선지만 보고도 어떤 주제의 문제인지 간파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읽어보는 겁니다. 10초도 안 걸리니까 꼭 읽어보세요. 꼭! 문제부터 읽기! 제시문에서 주어지는 정보도 있으니까 넘어가지 마세요. 맨 처음에 글만 읽어보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읽어봐야 “아, 이게 이런 자료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에서 무엇을 물어보는 지 확인하고 자료를 보게 되면 본인이 구해야 하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다.

## ② 자료해석과 선지 해결에 필요한 만큼의 개념만 사용

어디까지나 우리의 목표는 문제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만큼 개념을 끌어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다만, 이것은 평상시 공부할 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 모의고사’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EBS 및 기출문제를 통해 필요한 만큼보다 좀 더 찾아보고 비교/대조해보는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느 시기의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과 공전 궤도를, (나)는 현재와 비교한 서로 다른 시기 A, B, C의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과 공전 궤도 이심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나)에서 지구 자전축 경사각과 공전 궤도 이심률 이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3점]

- <보기> —
- ㄱ. (가)는 현재 지구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 ㄴ. (나)에서 30°S 지역의 연교차는 A가 B보다 크다.
  - ㄷ. 우리나라의 여름철 평균 기온은 A < C < 현재이다.

( 자작문제, PG-201912-03 )

시작부터 기출문제가 아닌 제가 만들었던 자작 문제로 가져왔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방식대로 한 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가)는 '어느 시기'의 지구 자전축 방향과 공전궤도를 나타낸 것이네요.

(나)는 현재랑 비교해서 A, B, C 시기의 자전축 경사각, 궤도 이심률을 나타낸 것이랍니다. 선지를 살짝 볼까요?

ㄱ. (가) 시기가 현재인지 물어보네요.

ㄴ. 남반구 중위도 지역의 연교차

ㄷ. 우리나라의 여름철 평균 기온

②

ㄱ. 우리가 이미 습득한 개념을 통해, 현재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겨울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는 현재 지구의 모습이 아니므로 ㄱ은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ㄴ. 남반구 위도 30°의 연교차를 비교하는 문제네요.

(나)에서 A와 B 시기는 이심률의 차이만 있습니다.

이심률↓ → 원일점(남반구 겨울) 가까워짐, 근일점(남반구 여름) 멀어짐 → 남반구 여름기온↓, 겨울기온↑. → 연교차 ↓

이심률이 작을수록 남반구의 연교차가 감소하므로 A가 B보다 ㄴ겠네요. ㄴ은 맞는 선지네요.

ㄷ. 우리나라의 여름철 평균 기온을 물어봅니다.

(나)에서 현재와 C 시기는 이심률 차이만 있네요.

ㄴ에서 구했던 것처럼 북반구를 생각하면, 이심률이 작을수록 북반구 연교차는 작아집니다.

따라서 C 시기의 여름철 평균기온은 현재보다 낮겠네요. ( C < 현재 )

A 시기와 C 시기는 이심률은 같은데 자전축 경사각이 다르네요.

'평균 기온'을 물어보았으니, '자전축 경사각'과 '태양의 남중고도'를 관련지어야 합니다.

태양 빛이 비스듬히 비출수록 지구에 입사되는 면적이 넓어집니다. 지구가 받는 태양 에너지가 넓은 면적에 분산되므로 당연히 단위 면적에 받는 에너지도 적습니다. 따라서, 태양 빛이 비스듬히 비출수록 (남중고도가 낮을수록) 평균기온은 낮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엽★ 태양의 남중고도 값을 물어보는 것은 개정 전 내용이라 빠졌습지만, 알아두셔도 되고 몰라도 되는 내용이지만 일단 작년 지구과학에 나왔던 내용이라 저는 외우고 다녀서 적어봅니다.

태양의 남중 고도(h) = 90° - 위도(°) ± 자전축 경사각(°) (여름철이면 (+), 겨울철이면 (-))

여름철 평균기온이니 자전축 경사각이 작을수록 태양의 남중고도는 낮고, 평균기온도 낮겠네요.

A가 C보다 자전축 경사각이 낮으니 여름철 평균 기온은 A가 C보다 낮습니다. ( A < C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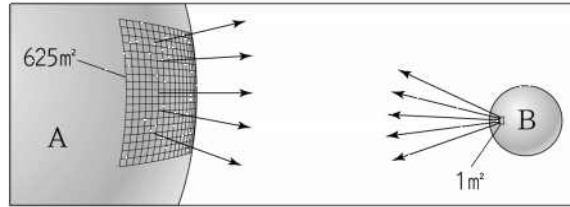
처음에 구했던 것을 종합하면 여름철 평균기온은 A < C < 현재임을 알 수 있겠네요.

ㄷ선지는 정답입니다.

이번 문제의 정답은 ㄴ, ㄷ 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 그림은 별 A와 B에서 단위 시간당 동일한 양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A의 광도는 B의 40배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흑체로 가정한다.) [3점]

— <보 기> —

- ㄱ. 표면 온도는 B가 A보다 5배 높다.  
 ㄴ. 반지름은 A가 B보다 150배 이상이다.  
 ㄷ.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B가 A보다 길다.

( 2020 7월 모의고사, 지구과학1 12번)

한 달 전에 치러진 7월 모의고사 지구과학1 12번 문제입니다. EBS에서는 오답률 약 63%으로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은 문제였습니다. 처음 문제를 풀었던 그대로 <① 문제 읽고 선지 훑어보기 → ② 선지 해결에 필요한 만큼 개념 끌어내기> 방식대로 풀어보겠습니다.

①

일단 그림을 보니까 별에서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A는 면적 625만큼(단위생략), B는 면적 1만큼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A의 광도가 B의 40배라고 나왔네요.

선지를 살짝 볼까요?

- ㄱ. 표면 온도  
 ㄴ. 반지름  
 ㄷ.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②

‘광도’의 정의를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들  $L = 4\pi\sigma R^2 T^4$ 로 암기하고 있을겁니다.

지구과학1에서 ‘광도’는 ‘단위 시간당 흑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입니다.

그리고 같이 떨어 나오는 개념, ‘슈테판-볼츠만 법칙’입니다.

지구과학1에서 ‘슈테판-볼츠만 법칙’은 ‘흑체에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입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E = \sigma T^4$ 입니다.

‘슈테판-볼츠만 법칙’을 단위 면적이 아닌 흑체의 면적(구의 겉넓이)에 대입하면 ‘광도’가 됩니다.

TMI는 여기까지 하고, 문제 해결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의 첫 문장부터 알 수 있듯이, 첫 번째로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A는 면적 625만큼(단위생략), B는 면적 1만큼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A의 광도가 B의 40배.

- 슈테판-볼츠만 법칙에서,  $625E_A = E_B$
- 광도 비율이 나왔으므로,  $L_A = 40L_B$

이제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선지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ㄱ.  $625E_A = E_B$  에서

$$625\sigma T_A^4 = \sigma T_B^4 \text{ 이므로}$$

$$5T_A = T_B$$

표면 온도는 B가 A의 5배네요. ㄱ은 맞는 선지입니다.

ㄴ.  $L_A = 40L_B$ ,  $5T_A = T_B$  이 두 개의 식을 사용하면

$$L = 4\pi\sigma R^2 T^4 \text{에서}$$

$$4\pi\sigma R_A^2 T_A^4 = 40 \times 4\pi\sigma R_B^2 (5T_A)^4$$

$$\left(\frac{R_A}{R_B}\right)^2 = 40 \times 5^4 \text{이다.}$$

$$\frac{R_A}{R_B} = 2\sqrt{10} \times 5^2 = 50\sqrt{10}$$

$\sqrt{10} > 3$ 이므로  $50\sqrt{10} > 150$ 이 되겠습니다.

A의 반지름이 B의 반지름보다 150배 이상 크다는 것을 확인했네요. ㄴ도 맞는 선지입니다.

ㄷ.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을 물어보면 바로 ‘빈의 변위 법칙’이죠?

빈의 변위 법칙에 따르면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흑체의 표면 온도와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온도가 낮을수록 긴 파장대에서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선지로 가서, B의 표면 온도가 더 높으니까  $\lambda_{\max}$ 은 B가 A보다 짧아야겠네요. ㄷ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면 ㄱ, ㄴ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① 문제를 먼저 읽고, 자료와 선지를 살짝 본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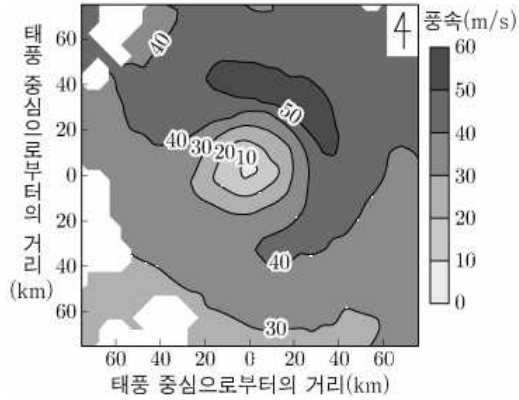
② 자료 해석과 선지 해결에 필요한 만큼 개념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18. 그림은 북반구 해상에서 관측한 태풍의 하층(고도 2km 수평면) 풍속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등압선은 태풍의 이동 방향 축에 대해 대칭이라고 가정한다.) [3점]



<보 기>

- ㄱ. 태풍은 북동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 ㄴ. 태풍 중심 부근의 해역에서 수온 약층의 차가운 물이 용승한다.
- ㄷ. 태풍의 상층 공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2021학년도 수능대비 6월 모의평가 지구과학1 18번)

네. 나왔습니다. 6평 지구과학1 오답률 1위! EBS에서 추정된 오답률은 80%라고 나왔습니다. 사실 20번을 넣으려고 했으나, 20번은 워낙 뜨거운 감자라 다른 분들이 많이 리뷰를 해서, 수험생들의 개념의 허점을 잡아낸 문제를 풀이해보겠습니다. 시작해보죠!

시작하기전에! **[그래프] 자료가 나왔다. → 무조건 x축/y축/단위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①

‘북반구’ 태풍 문제네요. 자료에선 [하층]부분의 풍속 분포를 알려줬네요. x축/y축 둘 다 태풍 중심으로부터 거리를 알려줬네요, 옆에는 ‘색이 어두울수록 풍속이 빠르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선지 살짝 볼까요?

- ㄱ. 태풍의 이동 방향.
- ㄴ. 태풍이 지나갈 때 표층 해수의 변화.
- ㄷ. [상층]공기의 나가는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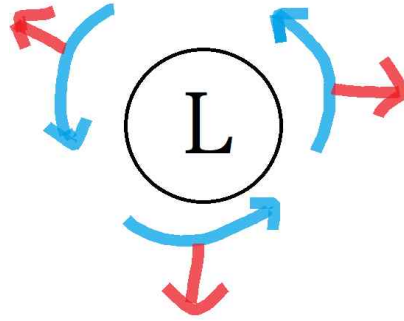
②

ㄱ. 태풍의 이동 방향을 물어봅니다.

북반구에서 태풍의 이동 방향의 오른쪽은 위험반원이고 풍속이 안전반원에 비해 빠릅니다. 자료에선 태풍의 중심의 북동쪽 방향의 풍속이 50m/s까지 표시되었으므로, 북동쪽이 위험반원임을 확인 할 수 있겠네요. 상대적으로 풍속이 느린 남서쪽은 안전반원이 되겠고, 그러면 태풍은 북서쪽으로 이동하네요. ㄱ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ㄴ. 태풍 중심 부근 해역에서 용승 현상이 일어나느냐?를 물어봅니다.

북반구에서 바람은 저기압 주변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니다. '에크만 수송'의 개념을 끌어와야 하는데, 북반구에서 에크만 수송은 풍향의 오른쪽 90°방향으로 표층 해수가 일어납니다.



(파란색이 저기압 주변의 바람 분포, 빨간색이 에크만 수송으로 인한 표층 해수의 이동방향.)

따라서 저기압인 태풍의 주변부에서 표층 해수가 발산하게 되므로, 중심부의 해수가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간 해수를 채워줘야 하는데, 중심부 해역에서 용승이 일어남으로써 표층으로 해수를 공급하게 됩니다. ㄴ 선지는 옳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ㄷ. 많이 틀린 선지입니다. [상층]부분 공기가 불어나가는 방향을 물어봅니다.

태풍의 [하층]부분은 저기압이라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들어갑니다. 여기서 [상층]부분도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겠네. 해서 ㄷ 까지 옳은 선지로 골랐다가 틀리신 분들 많을 겁니다. 아래는 올해 수능특강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p80)

122 **5강** 대기의 변화

**개념 Check!**

**태풍의 눈**  
태풍의 눈에서는 약한 하강 기류가 나타나지만, 중심 기압은 주변보다 낮다.

**지구 시스템 구성 권역의 상호 작용으로서의 태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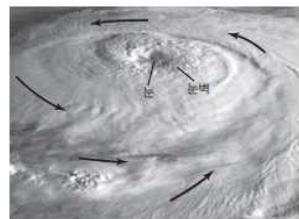
태풍의 발생과 성장에 관여하는 에너지원은 수증기의 잠열이므로, 태풍의 발생은 기권과 수권의 상호 작용에 해당하며, 태풍의 강한 바람이 표층 해수를 혼합시키고 용승을 활발하게 하여 표층 해수에 영양 염류를 공급하기도 하므로 기권과 수권 및 생물권의 상호 작용이기도 하다. 또한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면 기권과 지권의 상호 작용을 통해 태풍의 세력이 약해지거나 소멸한다.

1.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약 50 km에는 약한 ( ) 기류가 나타나 날씨가 맑은 태풍의 ( ) 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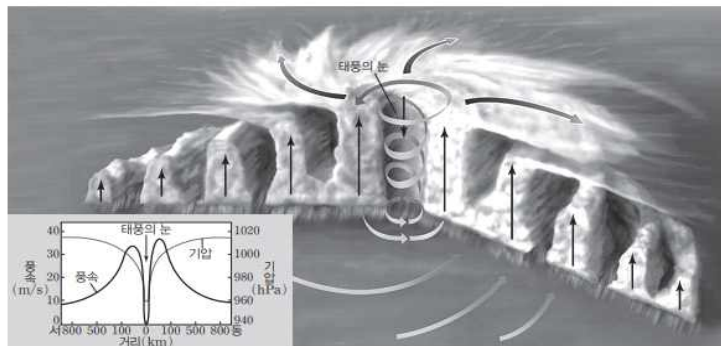
2.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면

**(4) 태풍의 구조와 날씨**

- ① 태풍의 구조: 태풍은 반지름이 약 500 km에 이르고, 전체적으로 상승 기류가 발달하여 중심부로 갈수록 두꺼운 적운형 구름이 형성된다. 중심부로 갈수록 바람이 강해지다가 태풍의 눈에서 약해지며,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은 계속 낮아진다.
- ② 태풍의 눈: 발달한 태풍에서 나타나며, 태풍 중심으로 부터 약 50 km에 이르는 지역으로 약한 하강 기류가 나타나 날씨가 맑고 바람이 약하다.



위에서 본 태풍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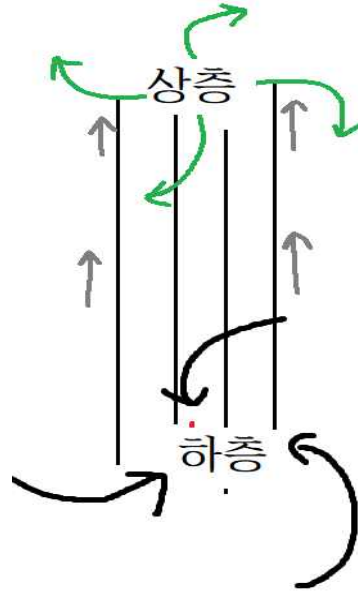


태풍의 구조와 기압 및 풍속

(일단 연계교재엔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는 걸로 삽화가 있는데, '왜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갈까?'의 언급이 없음.)

태풍에 불어 들어간 공기는 상승기류를 통해 상층부분까지 가게 됩니다. 상층에 존재하는 공기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으므로, 상층 부분에는 공기의 발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상층부분에서 발산하는 공기는 '전향력' 때문에 발산 방향의 오른쪽으로 전향력을 받게 됩니다. (북반구의 전향력은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따라서 상층 공기는 고기압성 바람과 같이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나갑니다.



(조잡한 그림 ㅈㅈㅈㅈ)

그래서 ㄷ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따라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ㄴ 이 되겠군요.

마지막 문제는

태풍 하나의 주제로 에크만 수송이랑, 전향력까지 같이 물어봐서 매우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수험생들이 많이 틀릴 만도 합니다.

알고 있는 개념들의 연결을 잘 이었는가도 확인해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 2. So... What to do ?

앞에서 언급했던 ①, ②방식대로 3문항을 풀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풀기 위해서는 딱 하나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 “개념학습이 제대로 되어있다.”

모든 탐구 과목이 그렇듯이 개념학습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기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특히, 개념이 곧바로 적용되는 지구과학 만큼에서는 제대로 된 개념학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념에 대한 다른 개념의 연결도 중요합니다.** (Ex. ‘용승’이라는 개념은 **엘니뇨/라니냐에 많이 연결되지만, 태풍, 에크만수송 등에도 연결됩니다.**)

감히 제 실력으로 ‘어떻게 개념 공부를 해야할까요?’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요즘 수험생들은 인강 패스 적어도 하나쯤은 가지고 있고, 인강 사이트의 선생님들의 OT를 들어보고 수강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해서 인강선생님 커리큘럼을 타는 것으로도 개념학습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구과학1 콘텐츠도 많은 편이기도 하고요.

- ① 문제 읽기, 자료/선지 훑어보기.
- ② 문제 풀이에 필요한 만큼의 개념 사용.

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개념학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개념을 알아야 하나요?”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개념을 배우고 난 이후 EBS같은 교재를 활용해서 자신이 모르는 부분들의 빈 곳을 채워, 점점 빈 곳이 없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입니다.

결국 이 칼럼이 하고자 했던 말은

1. **개념학습 제대로 하자 + 다른 개념과의 연결도 알아두자.**
2. **문제 풀 때, 문제 꼭 읽어봐라. (언어낼 수 있는 정보를 얻자.)**
3. **정답을 맞추는게 목표이므로, 시험지 풀 때 필요한 만큼의 개념을 사용해라. (단, 3번은 시험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지향점이므로, 실모에서 활용하자.)**

였습니다.

마지막으로 QnA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 3. Q&A

#### Q. 생전 처음 보는 선지를 마주했을 때 대처법? (오르비)

A. 일단 수능 시험은 우리가 배운 범위에서 출제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선지라도 우리가 배웠던 지식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예시로 작년 6월 모의평가때, 마이산의 남쪽 사면과 북쪽 사면 차이점을 물어보는 선지가 등장했는데, 사실 다른 개념과 연결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에 해결 자체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런 선지를 보면 다른 개념들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 Q. 글쓴이의 지구과학 점수가 잘 나온 이유요! (오르비)

A. 그냥 지구과학을 좋아하고, 지구과학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은 조졌음;;)

#### Q. 연계교재랑 기출 활용법! (오르비)

A. EBS에서는 예전 기출과는 다른 새로운 자료와 문제가 간간히 보입니다. EBS를 풀면서 마주했던 새로운 문제들을 눈여겨보는 쪽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은 개념학습에서 배웠던 것들을 적용하기 매우 좋습니다.

EBS - 새로운 자료와 기출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 눈여겨보기.

기출 - 개념학습 과정에서 자신의 개념이 제대로 학습되어있는지 확인하는 용도 + 복습

#### Q. 지엽은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오르비)

A. 위에서 연계교재 활용법이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EBS교재에서 지엽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던 것 같은데, 지엽적인 내용으로 나온 문제들은 눈여겨보고, 해당 문제의 개념을 인지하는 것이 차선책인 것 같습니다. (완벽한 지엽 대비는 아예 싸그라 외우는 방법밖엔 없네요.(비추))

#### Q.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 기출 보면서 해야 할 것들. (오르비)

A. 문제푸는 알고리즘은 칼럼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보면서 해야 할 것은 개념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보았는지도 보아야 하겠습니다.

#### Q. 한동안 지구과학1 손 놓아서 개념이 빈 것 같은데, 개념 다시 돌리기엔 부담돼요. (포만한)

A. 개념 인강을 전체 다시 듣기에는 남은 100일이라는 시간은 너무 촉박할 수도 여유로울 수도 있을겁니다. 개념교재가 있었다면 생각날 때, 마다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모나 N제등에서 자주 틀리는 주제면 그 부분만 수강하는 것도 좋겠네요.

#### Q. 기출 3회독 하는게 나올까요? N제도 하고, 서바도 듣고, OZ도 듣고, 다 하려니까 정신나갈 것 같아요. (포만한)

A. 기출에 나왔던 선지, 자료에 익숙해졌고, 문제 해설을 남에게 해줄수 있을 정도가 되면 기출 학습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인강 커리에, 서바에, N제에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조금 해 하기보다 하나라도 진득하게 해봅시다!

## 4. Ending

칼럼 쓴다고 예고는 해놨는데, 2주나 미뤄서 너무 늦어버렸네요.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ㅠㅠ (제 성격이 정말 게을러서...)

딱 요약해서 몇 줄 쓰기에는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일 것 같아서, 사족을 붙여서 자작 문제랑 기출문제를 넣고 제가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까지 설명하느라 A4용지 10장 이상 분량으로 조금 긴 글이 되었네요. 욕심쟁이라 죄송합니다. 흑흑.

100일 남았네요. 나중에 돌아보면 100일도 참 짧은 시간이 될겁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주세요.

또 마무리가 길어지네요.

질척거리는건 Cool하고 Sexy하지 않으니까 이만 가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수능공부하는 입장이다보니 나중에는 컨텐츠 후기도 남겨보겠습니다.

끝!